

광주 '복합쇼핑몰 3인방' 건립 경쟁 본격화

더 현대 광주, 공공기여 5899억...5가지 문화 테마 융합 복합몰 신세계 프라퍼티, 전국 최대 어등산 스타필드 건립 절차 '착착' 광주신세계, 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부지에 백화점 신축 사업 속도 '호남권 프리미엄 시장' 선점 경쟁 치열...소상공인 보호에 만전을

민선 8기 광주시 역점 사업인 이른바 '복소(복합쇼핑몰) 3인방' 건립사업이 현실화되면서, '호남권 프리미엄 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사회에선 광주시가 쇼핑몰 유치 성과에만 매몰돼 공공기여·개발 등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축소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을 소홀히 하는 방식의 유치 정책만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 건립 등을 담은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협상 조정협의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여 액수와 비율을 결정했다.

공공기여 액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 1조835억원의 54.4% 수준인 5899억원이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내에서 공공기여 범위를 정한다.

광주에서 요구한 복합쇼핑몰·업무시설·호텔 등 '전략시설'에는 40~45% (1102억원), 상업·주거 복합 등 '사업성 확보시설'에는 가장 높은 60% (4664억원), 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 시설'에는 40% (1333억원)를 적용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15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3~4년간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협상에 따라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플렉스측도 광주 북구 일동 일대 전체 부지 29만6340㎡ (8만9642평) 내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 광주'를 비롯한 300실 규모 49층 높이 특급호텔, 아파트 4186세대 건립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광주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더현대 광주'는 연 면적만 국내 대표 핫플레이스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1.5배에 이르고 친환경, 최첨단 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테마를 융합한 국내 첫 문화 복합몰로 지어

진다. 현대백화점측은 현재 기업의 미래가 걸린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해 주요 직원들을 전 세계 유명 유통가로 급파해 벤치마킹 등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복합쇼핑몰 강자인 신세계프라퍼티도 어등산 관광단지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를 짓기 위한 절차를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다.

지난달 13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관광·휴양·레저·복합 쇼핑이 가능한 '그랜드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광주시와 신세계프라퍼티측은 올 연말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호남 유통가 맹주'인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지난 27일 걸림돌이 많았던 이마트 부지 중심의 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신축 부지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어 부지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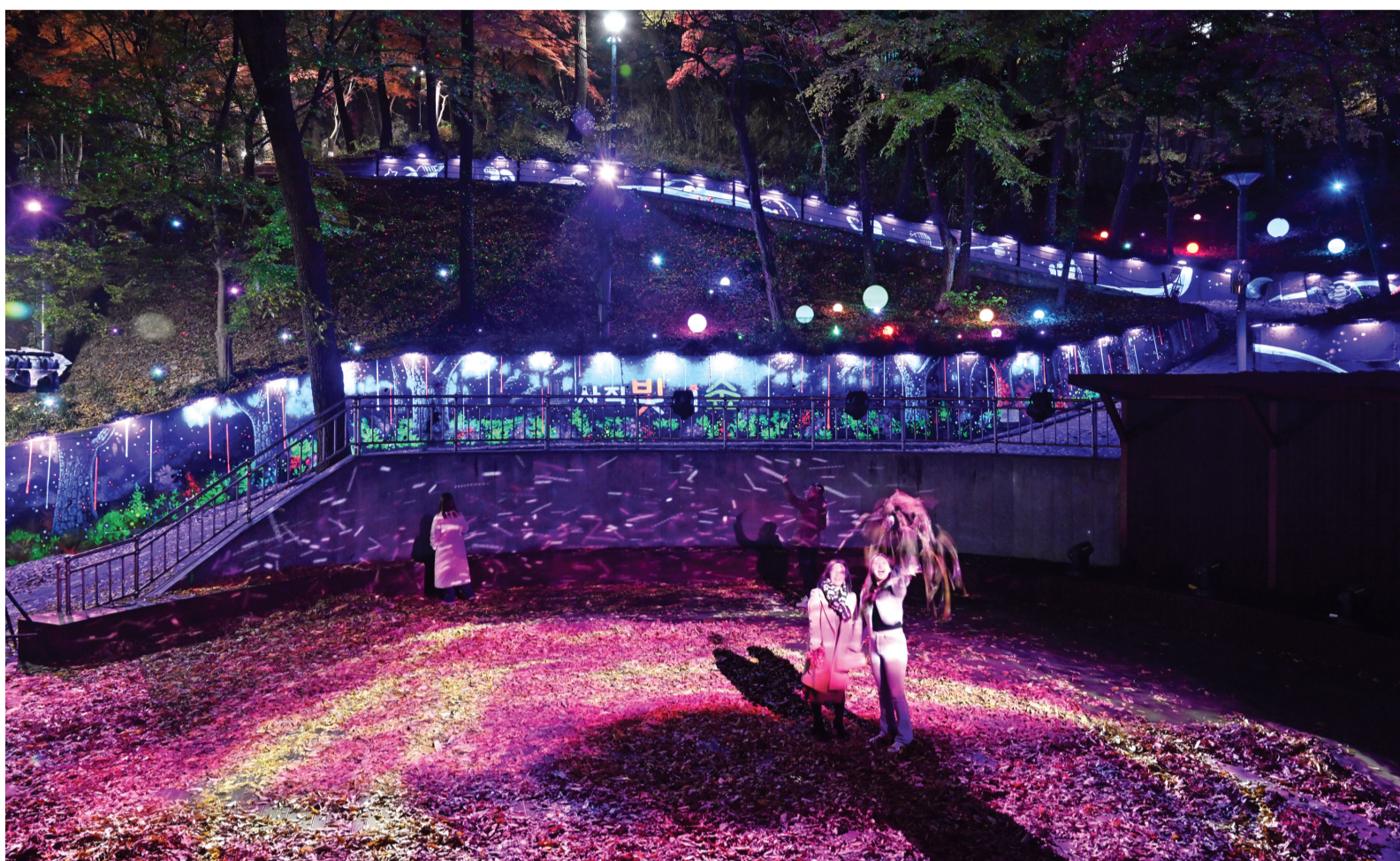
새롭게 바뀐 확장안은 이마트 부지 이전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신세계와 땅을 소유한 금호축협 협상에 나섰다가 땅값 문제 등으로 무산된 안으로, 유통업계에서도 최적의 개발안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안은 백화점이 대문면 뒤로 숨어드는 구조였다면, 새로운 안은 광주 신성장 허브가 될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쇼핑·문화·예술을 복합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형 백화점으로 건립하는 대규모 확장안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부지 변경으로, 이마트 광주점의 영업 종료 방침도 철회돼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역 유통가에선 이번 '복소 3인방' 경쟁의 승자가 대형 유통업계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500만 인구 규모의 광주·전남·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보다 빠른 정식 개장일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이익 중심의 공공 기여 범위 확대와 편의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해 복합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직공원 빛의 숲으로 오세요" 광주시민의 추억을 간직한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이 미디어아트를 만나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3권역 '사직 빛의 숲' 점등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직 빛의 숲은 사직공원 내 기존 산책로 830m 구간을 1시간 정도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아간 경관 코스다. G타워를 포함해 11개 주 공간과 5개 보조 공간으로 구성됐다. 오후 6시 30분~밤 10시 30분 관람할 수 있다. /니평주 기자 mjna@kwangju.co.kr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사우디 리야드 119표로 선정
부산 29표 그쳐... 로마 17표

우리나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 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 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 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

광주지법 판사들이 터미널 방문한 까닭은? ▶6면

광주FC 인영규 "시즌 최종전에서 웃겠다" ▶18면

신 팔도명물 - 달콤 쫄면 '논산 양촌 곶감' ▶22면

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글로벌 교육

전남에서 시작합니다

기간 2024. 5. 29.(수)~6. 2.(일) | 장소 전남 여수엑스포해양공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KOREA GLOCAL EDUCATION FAIR 2024 (GLOCAL EDU FAIR 2024)